

목장 나눔지 (11월 12일)

Worship 찬양과 경배

찬송 272장 / 고통의 명에 벗어나려고

Words 말씀

본문 욥기 10:1-22 / 하나님이 고통에 침묵하실 때

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자,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려 합니다.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. 때로 하나님은 우리 물음에 침묵하기도 하십니다. 하나님이 부당하신 걸까요? 아닙니다.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도의 권리라면, 질문에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입니다.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.

[1]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묻습니다(1-12절).

1 욥이 하나님께 청한 것은 무엇입니까(2절)?

2 욥이 하나님께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(3절)?

3 욥은 자신이 당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(7, 8절)?

<나눔1> 욥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.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간곡하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? 꼭 고통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과 질문이었는지 나눠봅시다.

<나눔2>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멸시받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.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? 혹은 그런 감정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? 이런 괴로움을 겪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.

[2] 읍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버려두라고 호소합니다(13-22절)

1 읍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다고 생각합니까(13-15절)?

2 읍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한다고 느낍니까(16, 17절)?

3 읍이 자신을 공격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(20, 21절)?

<나눔3> 읍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'사냥꾼'이나 '침략군'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읍에게 결여된 '하나님 이해', '하나님 인식'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

Work & Witness 사역나눔

1. 겨울방학 신앙훈련학교 안내

- 성장반(요나서, 6주): 개강 12/7(목) 오전반 10:30 / 저녁반 7:30
 - ▶ 대상: 일대일기초제자양육 수료자 또는 예비목자훈련 참여 희망자 또는 목장 훈련 희망자
 - ▶ 신청은 목자를 통해 추천서(본당로비에 비치)를 작성하여 교구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선지서 강해(말라기, 5주): 개강 12/9(토) 오전 7:30
 - ▶ 강사: 조인성 목사
 - ▶ 신청은 본당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 제출 또는 홈페이지 신청
- 일대일기초제자양육(8주): 목자가 양육할 분을 섭외하여, 양육 받을 사람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구 목사에게 제출

2. 교구 연합 종강예배

- 11월 29일(수)은 교구 연합 종강예배로 모입니다. (오전 10시 30분 / 저녁 7시 30분)
- 종강예배 중에는 종강 축하 및 격려의 시간이 있습니다.
- 종강 예배 후에는 각 교구별로 목장 가족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구별 시간이 있습니다.
- 목장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